'2021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지난 7월 6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401호에서 '미래기술과 산업보건의 변화'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 편집실

2021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미래기술과 산업보건의 변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는 AI, IoT, 빅데이터, 5G 기술 등 디지털 기반의 미래기술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보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과 사업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개선사례 등을 통해 산업보건 분야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지금은 산업보건 분야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며,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기술을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적용하고 공유경제, 플랫폼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주제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국내외 동향(백승렬 어거노믹스 대표), ▲빅데이터의 이해 및 산업보건 분야의 활용 (임현승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디지털 기술의 안전보건 적용사례(김재형 기아 안전보건기획팀장/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겸임교수)로 진행됐다.

기술의 양면,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

㈜어고노믹스 백승렬 대표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국내외 동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라는 우려와 달리, 직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바뀔 것이다"며, "디지털 기술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노동시장 양극화, 개인정보 노출, 자율성이 침해 등과 같은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학교 임현승 교수는 '빅데이터의 이해 및 산업보건 분야의 활용'에 대한 발표에서 "수많은 빅데이터가 생성되지만, 가치가 없는 데이터는 수집이나 분석도 의미가 없다"면서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과 선별기준이 중요함을 말했다.

'디지털 기술의 안전보건 적용사례'를 발표한 기아 안전환경기획팀 김재형 팀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물적인 지원'이나 '감독강화'나 '처벌'보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힘든 사업장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돕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는 코로나19로 발표자와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으며 1,84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